이정일 <칸트 비판철학, 비판적으로 읽기>

1강 비판철학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철학은 칸트 스스로가 규정한 것과 같이 비판철학으로 이해된다. 칸트는 전통적인 의미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비판을 아주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다.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비판의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에 따르면 이성의 법정에서 원고, 피고, 판결자 모두 이성이 된다. 이성이 이성을 고발하면서 이성으로 하여금 이성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백히 할 것을 판결한다.

『순수이성비판』은 1781년에 초판이, 1787년에 약간 수정된 채 재판이 출판되었다. 이 저서는 칸트의 비판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서가 되었다. 칸트는 영국 경험론 전통의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대륙 합리론의 독단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의미를 정당화 해명(Geltungsnachweis)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인식에서는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순수오성개념에서 그 근원을 갖는다. 이 점에서 칸트는 영국 경험론과 확연히 구별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과『프로레고메나』에서 흄의 이의신청을 충분히 잘 의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즉 경험에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근거로 사용할 때 이 사용의 객관타당성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칸트는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있고, 경험에 앞서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순수감성형식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순수사고형식인 범주에서 정당화한다. 독단철학은 아무런 정당화도 제시함이 없이 경험세계를 순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려는 위험을 내보이고 있다. 칸트의 비판철학은 아무 권리 해명 없이 개념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하는 위험을 비판하고 있다. 칸트는 인식론의 지평에서 개념의 무제약적인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볼프 계열의 철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자신의 선험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어떻게 해서 사고의 주관적 조건들이 객관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가”(wie nämlich subjektive Bedingungen des Denkens sollten objektive Gültigkeit haben A89/B122). "그러므로 나는 아프리오리한 개념들이 어떻게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해명을 범주들의 선험적 연역이라고 부른다.“(Ich nenne daher Erklärung der Art, wie sich Begriffe a priori auf Gegenstände beziehen können, die transzendentale Deduktion derselben."A85/B117)

칸트는 자신의 선험철학이 경험에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이 사용의 객관타당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의한다. 비판이란 경험가능

성의 객관타당한 조건들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역(Deduktion)이란 칸트에게서는 인식의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 대한 객관타당성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귀착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경험일반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한가?”

논리학은 진리의 부정적 기준인 모순률에 따른다. 논리학은 사고법칙의 타당성을 무모순에 입각해서 다룰 뿐이다. 하지만 칸트는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선험철학은 “진리의 논리학”(B82)으로서 사고형식의 대상연관을 다루고 이 연관이 어떻게 해서 성립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주 적용의 타당성을 망각하고 범주를 범주가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 적용할 때 그런 범주 사용이 필연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가상의 위험을 칸트는 경고하고 있다. 일반논리학의 무연관성(배제), 범주의 대상연관과 규정(진리의 논리학), 범주사용의 잘못된 적용(가상의 논리학)을 구별하면서 칸트는 범주의 대상연관과 규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자신의 선험철학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영국 경험론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은 인정하지만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성립한다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서 흄의 회의주의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다. 대륙의 합리론은 우리 개념사용의 한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조차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가 개념을 월권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가상과 독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범주의 근원은 경험이 아니라 순수오성이다(경험론과 차이). 범주의 적합한 적용대상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세계 뿐이다(개념의 독단적사용 비판). 범주 적용의 한계는 물자체다(앎의 경계와 무제약적 자유의 출현가능성). 우리는 물자체에 대해 사고할 수는 있어도 인식할 수는 없다. 범주의 근원(Ursprung), 적용 연관(Beziehung überhaupt), 적용의 한계(Grenze)를 명백히 설정함으로써 칸트는 자신의 선험철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경험일반의 가능조건들은 동시에 경험대상들의 가능조건들이다.” (B197)

칸트가 말한 선험철학은 비판철학의 큰 과제 안에서 자리 메김되고 평가된다. 선험철학은 인식론의 지평에서 독단의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칸트는 인식론의 지평에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물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만 현상의 세계만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다. 칸트는 인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성의 자발성과 감성의 수용성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칸트는 자신의 선험철학을 비판적 이상주의와 경험적 실재론자로 규정하고 있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조건이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조건들 아래서 규정된다고 말한다. 칸트가 천문학의 비유를 통해 도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선험철학 전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칸트가 A판과 B판 서론에서 아주 자세히 언

급하고 있다. 현대의 언어철학은 범주의 대상관련을 규정하는 술어의 대상관연으로 변형하면서 이 변형을 언어전회로 재구성하고 하거나 변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해서 칸트가 주장한 선험적 전회라는 표현 대신에 언어전회가 들어서고 있다. 또한 범주의 선험적 연역 대신에 선험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이라는 표현을 도입하고 있다. 칸트가 주장한 정당화 해명과 오늘의 언어철학이 요구한 선험논증은 같은 의미로 칸트의 물음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칸트는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자유의 형이상학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순수수학의 성립가능성, 순수 자연과학의 성립가능성, 선험적 종합판단의 성립가능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론이성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칸트는 신, 영혼불멸, 자유의 형이상학을 위해 그 타당성의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 『순수이성비판』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식론의 입장에서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칸트와 자유의 입장에서 형이상학을 근거지우려고 했던 칸트의 시도는 자연과 자유를 마치통일(Als-ob Einheit)로 완성하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 가를 되물으면서 칸트의 비판철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철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가 없다.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형이상학은 존재를 항상 그 전체에서 묻는 것이었다. 존재자가 존재하는 한에서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의 본래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저런 특정한 관점이나 지평이 아니라 그 궁극적 근거에서 다루는 것이 요구되었다. 전통형이상학에서는 인식론은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지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칸트는 형이상학을 통해서 분명히 전통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비판적 재구성과 비판을 노리고 있다. 전통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이해가 어떠하든 칸트는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전통철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기획 자체가 아무런 정당화도 수반됨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이 잘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형이상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과 검증이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철학은 형이상학의 근본 욕구를 포기할 수 없다. 칸트는 형이상학이 바로 이성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규정한다. 이성은 자신이 다루는 대상을 다른 것에 의존해서 다룰 수가 없다. 이성은 자신이 다루는 무제약자를 스스로 발견하고 근거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오성이 자연에 대해 입법자라는 것과 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입법자라는 것은 확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는 입법을 통해 자연의 인식론적 기초(오성의 자연입법)와 자유의 철학적 기초(이성의 자기 입법)를 제시했다. 여기서 칸트는 자유가 인간소질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인식론적 지평에서 학문으로서의 전통형이상학은 불가능하지만 자연소질로서 자유의 형이상학은 가능하다. 이성은 바로 이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계를 넘었을 때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칸트에게서 이 경계는 앎과 행위의 자유근거로 구별된다. 칸트는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한계지웠고 이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신앙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의 자율성 요구는 이성의 자족성 충족하고는 다르다. 이성은 자율을 위해 이성이 이성을 근거로 자기를 정립하고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성의 자족성 충족에서 이성은 자기 안에 자기 완결된 충족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칸트는 이성을 부정적 총체성을 걸머지고 완성할 수밖에 없는 이성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성이 포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완결할 수도 없는 과제를 이성이 자발적으로 떠맡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완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칸트는 이성의 형이상학적 운명을 말하고 있다. 학문이 할 수 있는 것과 학문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자유를 위한 형이상학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칸트의 비판철학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이 피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근본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성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반학문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적 검증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비학문적으로 근거지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는 이성의 무제약적 조건들로서 사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성의 규제적 이념은 무제약자를 포괄하는 것으로서만 요구될 뿐 학적인 규정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이성은 이율배반에 빠지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을 벗어난다고 해도 이성은 전체를 걸머지고 완결된 규정으로 완성해야만 하는 요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성이 이 요구를 의식하면 할수록 이성은 이것을 학적인 규정으로 완결 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성의 근본 딜레마다. 신앙으로 하여금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성이 자기 한계를 각성하는 것이 칸트 비판철학의 근본 의미다. 이성은 이 궁극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과 자유의 통일을 Als-ob 통일로 요구할 뿐이다. 이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되고 충족되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은 또 하나의 메타검증을 요구한다. 칸트의 사회 정치 철학은 이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형이상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다. 칸트는 이 운명을 학문의 시대에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 시도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말이다.